

하나님의 집 (고전 3:9)

본문	고전 3:9
설교자	김동권 목사님
장소	동부교회 대예배실
일시	2024.08.25 09:00
예배분류	동부주일 1부

서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데 누가 손을 대겠는가? 우리는 대단한 자이다. 창 2:8 원래 인간은 에덴 성전에 있었다. 에덴의 성전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흘러나왔다. 원래 인간은 에덴 성전을 통해 부족함이 전혀 없었다. 출 26:1 피 바른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다. 성막만 바라보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성막만 바라보는 것이다. 성막 즉 성령(성전) 중심으로 흘러가는 인생이다. 우리는 크고 온전한 세계 속에 있다. 멀리 보고 크게 믿어야 한다. 왕상 3:1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했다. 성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겔 47:1-12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곳곳에서 다 살아나는 환상을 봤다. 고전 3:9-16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생명 거는 것이 아닌 생명 걸 수 밖에 없는 신앙생활이다.

본론)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성전에 누가 사는가? 요 3:16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
- 어떤 터에 세워야 하는가? 모래 위에 세우면 안된다. 반석위에 세워야 한다. (고전 3:11)
-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지어야 하는가? 그리스도, 성령으로 집을 지어야 한다. (고전 3:12)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원래 인간은 굉장한 축복이다. 만물을 정복할 정도로 (축복받은 존재이다) 먹으면 죽는다고 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났다. 죄를 짓고 사단에게 장악되어 버렸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다. 하나님 못 만난 인간은 불신자 상태에 빠진다. 마귀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는 것이다. 결국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 한다. 하나님 떠나니 모든 것을 자신이 짊어져야 한다. 육신도 똑같다. 문제가 그칠 날이 없다. 병이 오면 끝나는 것이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지옥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이다. 후손도 같은 길을 가게 된다. 이 운명에서 빠져나와보려고 철학이나 선행을 한다.

여기서 나오는 길이 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게 십자가이다. 십자가(언약)를(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다른 길이 없다. 제일 급한 것이 구원받는 길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의 길이다.

영접하면 요 1:12 성전되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몸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된다. 내 몸이 성전이 되었으면, 이 성전이 흔들리면 안된다. 사탄이 통로로 우리를 자꾸 건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지어야 한다.

6가지의 기초 메시지가 든든히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3-20) 이게 우리 성전을 버티는 가장 중요한 응답이다. 구주를 영접하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게 된다.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면 안된다. 흔들린다는 것은 이 사실에 결론이 안난 것이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면 안된다. 우리 삶에 변함이 없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는 내 일이 흔들리면 안된다. 이게 반석이다.

불신자 상태 무섭다. 6가지이다. 마 16:13-20 말씀을 깨달으면 불신자 상태가 보인다. 마귀가(요 8:44) 귀신섬기게 만든다 출 20:4-5 정신에 문제가 생기고, 병이 오며, 지옥에 가게 된다. 그리고 자식또한 같은 길을 걷게 된다. 제일 급한 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캠프를 갈 때 사람살리러 가는 것이다.

창 3:15 피언약, 출 3:18 피제사, 사 7:14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 마 16:16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달해야 한다.

확신 5가지를 심어야 한다. 완전구원받았다.(구원) 반드시 용서받는다(사죄).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기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인도). 사단과 싸워서 이겼다(승리).

신자의 축복이 있다. 신분과 권세가 있다.

마 28:16-20 너는 가서 현장에 가서 제자 찾고 교회 세워라.

결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말씀 하나하나가 완전 각인, 뿌리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성령의 방법으로 멋진 집을 지어야 한다. 그게 사도행전이다. 마가다락방의 나의 현장의 축복이 와야 한다. 이게 정상이다. 나를 통해, 성령을 통해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날 것. 안디옥의 만남의 축복 허락하실 것이다. 또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 마게도냐의 미션홈의 응답이 온다. 전문 사역의 응답이 온다. 지교회의 문이 열린다.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말씀이 각인되면 흔들리지 않는다.